

미얀마 농업의 현황과 과제 *

서 종 혁

1. 서론

동남아시아의 자원부국 미얀마는 아직도 세계 최빈개도국 중 하나이다. UN은 개도국 중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 이하인 국가를 최빈개도국으로 지정하고 국제협력기구를 통하여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동남아에서 가장 잘 살던 미얀마가 어찌하여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였는지는 정치학은 물론이고 개발경제학의 연구대상이다. 지리적 위치의 인접성과 최빈국가의 공통점으로 인하여 국제기구에서는 주변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네 개 국가의 영문표기의 첫 자를 따서 CLMV 국가로 분류한다.

미얀마가 현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낙후되기까지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요인이 작용하였다. 주변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얀마는 서구의 식민지 국가로서 2차 대전 이후 독립하기까지 약 1990년 동안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았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미얀마 스스로 경제 사회 발전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 이후 1962년 군사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장기 군부 독재체제하에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였다. 그 결과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태국, 베트남, 캄

* 본 내용은 Myanmar Agriculture in Brief 2007 등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한경대학교 서종혁 연구교수가 작성하였다 (chysuh@hanmail.net).

보디아에 비해서도 국민소득이 낮은 편이었다. 1988년 이후 지금까지 사회주의 계획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꾸준히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권위적인 군부통치로 인하여 쉽게 체제 전환을 하지 못하고 있다.

1960년대 초부터 미얀마는 선진국들로부터 경제개발을 위한 원조를 받아왔다. 주로 식민 종주국이었던 영국이나 영국 연방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며 일본으로부터는 패전국으로서 피해 보상 차원에서 농업분야에 원조를 받기도 하였다. 동서 냉전시대에는 제3세계의 위치에서 줄타기 외교를 통하여 미국·소련 양진영으로부터 원조를 받아왔다.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과 인권침해를 이유로 198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서방의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민간정부 수립 이후 미얀마는 서방 세계와 외교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보다 활발하게 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얀마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로서 정치·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미얀마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과 높은 발전 잠재력을 감안할 때 농업개발협력은 한-미얀마 간 경제협력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본고에서는 미얀마가 보유한 풍부한 농업자원과 농업 생산 현황,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도전할 과제와 정부정책을 정리한 후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얀마 간의 농업협력 방향을 정리하였다.

2. 지정학적 위기와 생사경계 구조

지정학적으로 미얀마는 요충지에 있는 국가이다.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벵골 만 연안 국가이자 동남아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이다. 최근에는 중국이 벵골 만 연안 천연가스 개발과 벵골 만-중국내륙 간(운남성) 가스 수송관 설치와 고속도로 개발로 미얀마에 대한 경제 및 외교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서 서방국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미얀마의 중요성은 주변국가의 구성과 인구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주변국 인구를 합치면 약 30억 명으로 세계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며 미얀마는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세계의 양대 인구 대국인 중국(약 13억)과 인도(약 13억)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그 외 방글라데시, 태국, 말레이시아도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미얀마의 국토 면적은 67.6만 km²로 한반도의 약 3배에 달하며 인구는 약 5,900만 명(2010년 말 기준)의 다민족 국가이다. 전체 인구 중 미얀마족이 가장 큰 비중(전체 70%)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산족 등 13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용어로 미얀마어를 사용하지만 소수 민족 각각은 자기들 고유의 언어도 사용하고 있다.

미얀마는 장기간에 걸친 군사 통치를 받아왔다. 1962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부는 민간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면서 2011년 초까지 장기간 군부 독재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군인 엘리트가 정부의 주요 권한을 장악하는 인치 중심의 관료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다행히 2011년 중반에 총선의 실시와 함께 퇴역 군인중심으로의 민간 정부가 구성되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민간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고 야당지도자인 아웅산 수치의 연금해제와 함께 정치참여(국회)의 길을 열어주었다.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 90%가 불교를 믿고 있으며 그 외는 전통 신앙이나 기독교, 회교를 믿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이 불교가 생활화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타 종교를 배척하거나 박해하지는 않는다. 미얀마 인들은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받아 내세적 가치(소승불교의 영향)와 가족 중심적 가치 그리고 장유유서와 교육을 중시하는 가치(유교의 영향)를 가지고 있어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인들과 가장 유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인종적으로도 몽고민족에 속하고 있어 우리와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

경제체제는 장기간 동안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해오다 1980년대 말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정부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다행히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서구국가와 외교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시장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얀마 경제는 오랜 기간의 폐쇄적인 사회주의 경제체도로 인하여 동남아국가 중 최빈개도국으로 국가로 분류되는 CLMV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 속한다.

산업구조를 보면 아직도 1차 산업 위주의 개도국 위치에 머물고 있다. 전체 산업 생산의 44%를 농림수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서비스업(41%) 그리고 광공업 부문은 약 15%에 불과하다(2008/2009년 기준). 정부 발표 자료에 의한 1인당 GNP는 700달러가 넘지만(공식 환율로 환산 시 기준), 시장거래(암시장) 환율이 공정 환율보다 40~50% 높은 것을 감안할 때 1인당 실질 소득은 500달러 이하 수준이다.

표 1 경제구조(2008/2009년 기준)

구 분	비 율
농업(축산, 수산 및 임업 포함)	41.7%
제조업(광업 포함)	16.7%
건설 및 에너지	4.5%
수송/통신	12.9%
수송/통신	12.9%
서비스업	24.2%
계	100.0%

오랫동안 폐쇄적 경제체제의 유지로 인하여 2차, 3차 산업도 크게 발전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무역규모도 작은 편이다. 2008년 기준 수출액은 67억 8,000만 달러이며 주요 수출품은 생고무, 옥, 수산물, 콩류, 섬유류이며, 연간 수입액 규모는 45억 4,000만 달러이다. 주로 기계·수송 장비, 석유류, 건축 자재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미얀마는 풍부한 천연가스, 보석(루비, 사파이어), 수산 및 임산물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 더구나 저렴한 임금(미숙련 노동자 기준 월 40달러 이하)으로 인하여 선진 국가들은 물론이고 중국, 베트남까지도 미얀마에 진출하거나 경제협력, 자원의 공동개발에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3. 농업 자원과 농산물 생산

3.1. 자연 조건과 기상

미얀마는 산림, 고원, 협곡과 광활한 평원 등을 아우른 다양한 농업생태환경을 가지고 있다. 북부지역은 Hkakaboyazi산(해발 5,881m)과 길게 이어진 라카인 산맥(Rakhine Yoma) 그리고 산 고원지대를 중심으로 해발 900~2,100m의 산악지역으로서 서늘한 아열대 기후이다. 이러한 자연 조건으로 주변의 동남아 국가에 비해 보다 다양한 생태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남북의 상이한 기후대로 인하여 북부 산악지역은 서늘한 아열대기후, 중부 내륙지방은 건조기후, 남부지방은 열대몬순기후를 보이고 있다.

연중의 기후변화를 보면 3월부터 5월까지는 덥고 건조하며, 6월부터 10월까지는 덥고 비가 많이 오는 우기(Monsoon)이고,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비교적 서늘하고

청명한 날씨(Cool season)를 보인다. 미얀마의 기후적 특성에 따른 계절별 영농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미얀마의 기후 특성에 따른 계절별 영농형태

건기	Post monsoon	10월 중순 ~ 11월 하순 Cool 시즌에 대비한 벼 등 주요 작물의 육묘
	Cool season	12월 초순 ~ 2월 초순 섭씨 17~30도 기온으로 온대작물 재배 가능
	Pre-monsoon	2월 중순 ~ 5월 중순 강우량이 거의 없는 건조기후로 관개수 이용 영농
우기	Monsoon	5월 하순 ~ 10월 초순 많은 강우량과 고온으로 열대작물 재배

미얀마의 연간 평균 강우량은 2,865mm이며 북서쪽의 사가인 주(Sagaing Division)의 785mm부터 남동쪽의 탄닌타이 주(Tanintharyi Division)의 5,500mm까지 큰 편차를 보인다. 기온은 전국 평균이 20.0℃이며 최저 기온은 제일 낮은 북쪽 산 주(Shan State)의 15.0℃부터 제일 높은 곳은 남쪽의 탄닌타이 주(Tanintharyi Division)로 23.3℃이다. 양곤은 연 평균 최저기온이 22.6℃이나 1월 17.9℃로 제일 낮고, 4~5월은 25℃로 가장 높으며 나머지 달은 22~25℃로 최저기온이 유지된다.

3.2. 경지면적과 농지 이용

미얀마의 농지 면적은 약 2,900만 ha로(경작 가능 휴경지 포함) 우리나라의 17배에 달하며 용수만 확보된다면 이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용 토지자원은 풍부하다. 미얀마는 북위 15~26도에 걸쳐 광대한 국토를 보유하고 있어 열대, 아열대 및 온대성 기후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기후로 인하여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북부, 동북부 및 서부지역은 해발 1,000~1,500m의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남부의 고온 다습한 열대 농업지역과 농산물 생산이 크게 다르나 모든 지역에서 쌀을 생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미얀마의 농가호수는 약 544만 호(2007년 기준)이며 전체 인구 중 농촌 거주 인구는 약 69%이다. 농가의 소득 구성을 보면 농업 소득이 약 80%를 점하고 농외소득은 매우 낮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전체 경작 면적 중 곡물이 45%, 유지 작물이 17%, 그리고 땅콩과 콩류가 20%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쌀이 가장 중요한 농산물이다. 주요 작물의 식부 면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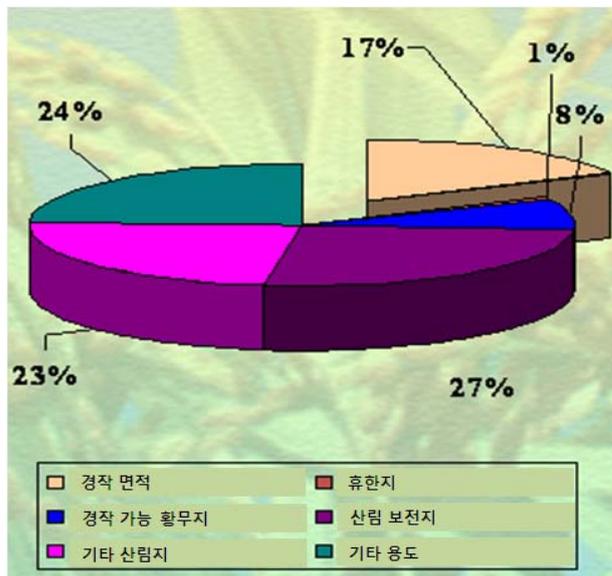
살펴보면, 2008~2009년 기준으로 벼가 약 809만 ha, 콩류가 328만 ha, 유지 작물이 약 316만 ha이며 옥수수는 약 35만 ha로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은 편은 아니다. 벼를 제외한 대부분의 작물이 2007~2008년도에 비하여 재배 면적이 약간 증가하였다.

미얀마의 주요 수출 농산물은 쌀 옥수수, 콩류 및 열대 과일을 들 수 있으며, 주요 농업 투입자재인 화학비료와 농약, 제초제, 우량품종 종자와 같은 생물학적·화학적 기술, 그리고 경운기, 트랙터, 펌프 같은 농기계 기술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농자재 중 농기계와 종자는 주로 태국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일부 채소와 열대 과일 종자는 대만으로부터 수입하기도 한다.

표 3 전체 국토 이용과 농지

구 분	백만 ha	%
경작면적	29.32	17.54
휴한지	0.82	0.70
경작 가능 황무지	13.98	8.36
산림 보전지	43.29	25.89
기타 산림지	39.09	23.38
기타 용도	40.89	24.45
총 토지 면적 a	167.19	100

그림 1 전체 국토 이용과 농지



2008~2009년을 기준으로 농산물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쌀이 약 3,145만 톤, 콩류가 412만 톤, 그리고 공업원료 작물이 1,025만 톤이 생산되었다. 또한 농산물 수출 실적은 총 14억 3,000만 달러를 달성하였고 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산물은 콩류, 쌀, 유지 농산물이다

쌀은 미얀마의 주요 식량으로 농업생산물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과거 주요 농산물인 쌀, 커피, 담배 및 면화 등에 대한 국가의 일괄수매 정책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저하되었고 이는 경제작물 수출량 감소로 이어져 농촌의 빈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근 정부에서는 농산물증산책의 일환으로 경제작물 생산량 중 일정량 이상은 농민들 자의에 의한 시장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쌀 등 11개 품목에 대하여 시장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4 전체 경작 면적(100%) 중 작물별 구성비

구 분	비 율
곡물(쌀, 옥수수)	45%
유지 작물	17%
콩류	20%
공업용 작물	4%
채소 작물	4%
플랜테이션 작물	4%
기타	6%

1998~1999회계 연도 이후 쌀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001~2002년도 쌀 수출량은 93만 9,000톤, 2004~2005년도 18만 톤, 2006~2007년도 1만 4,500톤에 불과하여 1950~1960년대에 연간 100만 톤을 수출하여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으로 명성을 날리던 시대와 큰 대조를 이룬다. 수출되는 미얀마 쌀은 품질이 낮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 수출시장은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

쌀 생산량은 2005년 이전까지 2,310만m/t 수준에서 2006년에는 약 12% 증산, 2007년에는 약 25%를 증가하였다. 쌀 생산량뿐만 아니라 콩류, 사탕수수, 커피, 면화 등 모든 작물생산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미얀마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식량기지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쌀은 미얀마의 주식으로 농업생산물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과거 주요 농산물인 쌀, 커피, 담배 및 면화 등에 대한 국가의 저가 구매 정책으로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토지 생산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쌀 생산량은 2005년 이전까지 2,310만mt 수준에서 2006년에는 약 12%, 2007년에는 약 25%의 생산량 증가를 보였다.

표 5 주요 작물 재배 면적

구 분	2007-2008(ha)	2008-2009(ha)
벼	8,125,000	8,090,000
옥수수	327,000	346,000
콩류	3,098,000	3,283,000
유지 작물	2,812,000	3,158,000
채소	458,000	481,000
과일	510,000	538,000
기타 요리용 작물	262,000	265,000

표 6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2008 기준)

구 분	생산량(1,000mt)
쌀	31,451
옥수수	153
콩류	4120
유지작물	2916
공업용 작물	10,258

3.3. 농업 기술수준과 생산성

미얀마 농업의 기술발전 수준은 매우 낮은 단계이다. 농업 기술의 발전 정도를 자원 생산성측면에서 보면 주변의 태국, 베트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대표적 농작물인 벼농사의 토지 생산성을 보면 2기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ha당 2.8톤의 쌀이 생산되어 인근 베트남의 약 4톤, 태국의 약 5톤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기작에도 불구하고 약 4.8~5.0톤의 토지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동 생산성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농업 노동 생산성을 대체할 수 있는 근사치로 많이 사용하는 농촌 노임도 월 50달러 수준이다. 실제로 농가의 호당 평균 연간

농업 소득(약 800달러)을 감안해 보면 농업의 노동생산성은 농촌 노임보다도 더 낮다고 판단된다.

미얀마 농업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농업 생산기반 정비가 미흡하여 농기계화가 용이치 않고, 화학비료와 농약 등의 현대적 투입재를 심각한 자본 부족으로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농촌의 사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본의 이자율이 연간 60~70%의 고리로 거래되고 있다.

미얀마의 농업은 이중 구조의 특성을 갖는다. 전체 농가 수의 90%를 차지하는 가족농(평균 경지 규모 1.5 ha)과 수출 시장을 목표로 대규모 기업 경영(50ha 이상)을 하는 국영농장과 민간 플랜테이션 농업(쌀 수출은 제외)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이중적 구조는 사유제를 제한하고 있는 농지 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즉 대부분의 소농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으로 개인 소유가 인정된 자작농이나 이들로부터 농지를 임차한 소작농이다. 반면 기업농은 정부 등 공공이 소유한 농경지를 최대 30년간 임차하여 영농을 하는 국영기업이나 민간 기업이다.

3.4. 농업 기계화

1948년 영연방에서 독립된 이후 농업관개부와 산업부 산하에 농기계공장을 설립하고 직접 생산, 보급하며 다수의 소규모 민영공장에서도 농기계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영농기계화 시범마을 23개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기계화 영농 기술을 농민들에게 확산시키고 있다.

2009년 말 기준 농기계 보유대수는 트랙터 1만 1,551대, 경운기 11만 24대, 자동탈곡기 2만 671대, 파종기 4만 6,354대, 수확기 3,220대 등 농가호수나 광대한 경지면적에 비하여 초기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표 7 미얀마 농기계 보유현황

품 명	수 량 (대)	품 명	수 량 (대)
트랙터	11,551	inter-cultivator	224,900
경운기	110,024	파종기	46,354
동력 탈곡기	20,671	수확기	3,220
탈곡기	7,670	양수기	169,011
건조기	546	-	-

4. 농업 정책과 발전의 과제

4.1. 농업 발전의 목표와 정책 방향

미얀마 정부는 농업 발전의 3대 목표로 첫 번째 식량의 자급자족, 두 번째 외화 획득을 위한 농산물 수출 증대, 세 번째 농업 생산성 증대를 통한 농업·농촌 발전의 지원에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농업 생산에서 (작물 선택의) 자유 허용,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농경지의 확대, 단년생과 단년생 농산물의 생산, 그리고 농기계와 투입재 부문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적극 권장, 농산물의 생산성 증대와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활동의 적극적 권장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농업 발전 목표와 정책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얀마 정부는 5대 전략을 설정하였다. 즉, (1) 새로운 농경지 개발, (2) 충분한 관개수의 공급, (3) 농업 기계화의 추진, (4) 신농업 기술의 수용, (5) 새로운 품종의 개발을 농업정책의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농업발전 전략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식량안보를 달성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전략으로 아래의 내용과 같이 농업금융, 식품유통과 무역의 개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기술 및 인력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 11월 9일 로마 식량안보 세계정상회의에서 미얀마 대표가 발표한 요지 가운데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과 식량안보의 정책과 구체 전략으로는 농업금융, 식품과 농산물의 무역 및 유통개선, 농지 및 수자원 이용에 초점을 둔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연자원 관리추진, 다양한 삶의 방식,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원을 통하여 천재 및 인재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을 관리하고 분산하는 메커니즘 구축, 지역 및 국제개발협력체와 파트너십 구축과 민간분야 참여 권장, GAP와 건조한 준 사막지대의 녹색화를 위한 물 공급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부작용 완화,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 관련 기관과 인력의 능력제고, 농업연구, 기술지도 및 교육 시스템의 강화이다.

4.2. 농업농촌 발전의 이슈와 연장의 개발 수요

4.1.1. 농업농촌 개발의 이슈와 개발 수요

미얀마는 의욕적인 정부 정책과 농업발전 전략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의 미흡과 농업관련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화학비료 등 현대적 농업 투입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어 농업 생산성이 매우 낮다. 나아가 농산물 가격을 지지해주는 정책 수단도 없기 때문에 농가 소득도 매우 낮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국가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할 현안의 농정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농업연구와 개발 분야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력자원 부족, 두 번째 적합한 농업기술 과 투입 재사용에 필요한 금융과 물질적 접근성 부족, 세 번째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적정 농업기술의 이전, 네 번째 농산물 마케팅 분야에서 거래와 이익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농산물 유통 구조 결여, 다섯 번째 양질이면서 우수한 농업 자재, 즉 종자, 농약, 비료, 농기계와 기구의 부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2.2. 한국과 미얀마 농업의 국제협력 방안

미얀마의 농업 협력은 인도적 차원의 농촌개발 지원과 선진국 농업을 지향하는 정부의 선진국 기술 따라잡기 정책의 일환으로(catch-up policy, 추격 정책)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확대하기 위한 수출농업의 육성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주로 나르기스 태풍(쓰나미 해일) 피해지역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양곤 시 남서부의 해안가 예아와디 평야(예아와디 강하구 델타지역)에서 2008년 7월에 발생한 사이클론으로 약 30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50만 호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표 8 농업·농촌 분야의 현장 개발 수요

- 과학자들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훈련 확대
- 농가들의 필요성 평가에 기초한 적정 선진 농업기술의 농가 이전(확산)
- 자원부족 소농을 위한 소액 금융 확대
- 농촌 종합개발사업의 시행
- 민간분야의 농업개발참여 적극 권장
- 농산물 유통단계 및 과정에 참여하는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할 농산물시장 정보체계 구축
- 농산물 도매시장 및 물류네트워크 구축
- 불법적인 농산물 판매나 농업자재 유통에 대처하기 위한 현장 감독 강화를 통한 품질관리 공공 서비스

자료 : Maung Maung Yi, 2010.

표 9 한국-미얀마 간 농업개발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

- 원예작물 분야의 수확 전/후의 관리기술
- 유기농업 분야(쌀, 채소, 과일)
- 농촌 종합개발(경종 농업, 축산, 관개수리, 교육, 보건, 사회복지, 소액금융 등)
- 원예 농산물 가공
- 토양개선과 보전
- 관개시설 네트워크
- 농산물 시장정보 시스템 구축

자료 : Maung Maung Yi, 2010.

이와 별도로 미얀마는 최빈개도국으로 하루 1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약 20%로 추산되며 이들에 대한 식량 지원차원에서 원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는 주로 국제적인 NGO 구호단체와 UNDP, UNICEF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불교 및 기독교 종교단이 소액채 중심으로 나르기스 피해 이외의 다른 낙후 농촌지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기구나 NGO단체에 의한 인도적 차원의 원조지원은 지원규모가 크지 않으며 주로 주택 복구, 농경지 복구, 학교와 교량 건설, 영농 자금 지원과 가축 사육지원 등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기성이 지원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지원은 선진 농업기술의 이전과 같은 농업생산성 향상에 목표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영농 전문가들의 참여에 의한 기술 이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민간 중심의 NGO가 협력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의 집행은 현지 NGO나 현지 전문가를 고용하여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자국의 전문가나 국제 전문가를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국제기구와 선진국의 농업개발 협력사업보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과 양자 간 또는 국제기구와 농업개발을 위한 다자간 농업협력 사업은 단위별 예산 규모가 크며, 기간도 준비 기간까지를 포함할 경우 4~5년 이상 소요된다. 최근까지는 서방 국가들의 대 미얀마 경제 봉쇄로 개발원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외교관계의 복원으로 보다 활발하게 국제개발협력이 진행될 전망이며 농업자원의 개발도 경제개발 협력의 중요한 부문 중 하나이다.

참고 문헌

MOAI, Myanmar Agriculture in Brief 2007.

Maung Maung Yi, Issues on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ICA-Myanmar Agriculture and Future Cooperation, in the KOICA-Hlegu Project Seminar, Hankyong National Uni. DEcember, 2010.

Tun Paw, Rural Development Study Tour Program in The Country Report. Hankyong National Uni. October, 2009.

FAO. FAOSTAT (www.fao.org).